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教育方式이 小兒의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考察

박종익* · 권홍주** · 이은미*** · 박은정****

大韓醫療氣功學會

I. 緒論

現代의 젊은 父母들은 傳統社會의 養育方法이 동물행동학적인 견해와 최근에 많이 밝혀지는 幼兒精神醫學的, 發達心理學的 연구 소견에 더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 자녀수의 격감, 경제력의 증가, 이에 따른 주거와 생활방식의 변화, 여권신장에 맞추어서 발생하는 養育方式의 변화로 단순히 西洋文明의 育兒方法을 모방하는 듯이 보인다.¹⁾ 과거 대가족제도하에서는 傳統의인 養育과 訓育의 방법을 대가족제도에서 자라면서 보고 관찰하고 보조자로 참여함으로써 배웠으나 핵가족에서 자라난 현대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얻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고 自己中心의로 자라나다가 정작 부모가 되었을 때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동을 養育하는 힘이 결여되게 되었다.²⁾ 따라서 요즘 부모들은 근본적으로 아이

중심적이기 보다는 自己中心의인 思考를 주로 하며 자식들은 자신의 부속물내지 장식품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訓育의 궁극적인 목적과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는 부모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육아방법에서 아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아이를 위하여 온 정성을 쏟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등의 헌신적이고 과보호적인 어머니상과는 달리 매우 自己愛의이고 自己中心의인 태도에서 온다.³⁾ 즉 父母의 양육태도가 子女의 성장을 위하고 子女들이 父母와 독립된 人格體가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사랑보다 부모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랑이며 부모가 채우지 못했던 욕망의 도구로 삼으려 하여 小兒의 精神問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⁴⁾

더구나 아동의 현 존재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로 넘어가면서 이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가족구조는 상당히 변했으며 아동의 노동

* , ** , *** ,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1) 홍강의 : 위기에 처한 부모역할과 아동養育, 한국정신치료학회지, 제 9권 제 1호, 1995, p.53

2) 上揭書, p.49

3) 上揭書, p.46

4) 具炳壽 : 小兒 精神에 대한 小考, 大韓 韓方小兒科學會誌, 제 9권 제 1호, 1995, p.179

력은 과거처럼 부모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못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윤리적 연결도 희박해진 반면에, 유아의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된 것과 같은 정도로 産兒制限과 避妊의 가능성과 지식이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이 태어날지, 또 언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한다면 아동은 부부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그 존립여부를 논쟁할 필요가 있는 인간의 생산물이 되어 아동은 더 이상 主體가 아니라 부모가 그들의 怨望이나 조건과 결부한, 부모들의 客體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아동이 부모의 기대에 어그러지거나 병약하거나 불구이거나 또는 정신박약일 경우에 뚜렷하게 되어 안정된 정신발달의 기초로서 무조건 수용되어야 할 확고한 부모-아동관계를 방해하고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⁵⁾

著者は 이것의 원인적 요소로 인간발달의 기초단계인 영유아기의 아동양육에 걸맞는 傳統社會의 양육방식보다는 新學問의 현대적인 아동양육을 배우려고 하는 現代의 育兒風土와 入試爲主의 교육, 物質主義, 産業社會의 영향으로 기능인 양성에 중점을 두는 知識教育이 主가 되는 반면 인격의 도야와 덕성함양을 위한 道德教育은 副次的인 것으로 전락하는 現代의 教育風土에 기인한다고 생각하여, 과거 전통사회에서 보는 童蒙觀(兒童觀)을 근거로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教育方式를 살펴보고, 아울러 韓醫學 文獻에 나타난 小兒精神健康을 위한 養育 및 教育方法들도 검토해보아 올바른 養育 및 教育方式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5) 金環姬 著 : 兒童精神病理學, 서울, 學文社, 1985, pp.35~36

II. 本論

1. 傳統社會의 童蒙觀

人間의 本性은 善하다는 孟子의 性善說은 朝鮮時代의 童蒙觀에 중대한 계시를 던져 주었다. 즉, 이것은 童蒙의 生得的 資質은 착하다는 기본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童蒙教育을 진행시키게 했다. 《小學》에서도 “仁, 義, 禮, 智는 人性의 근본도리이다. 무릇 이 仁義禮智의 근본도리가 그 처음에는 착하지 않는 바가 없다”⁶⁾고 했다. 退溪 또한 奇明彦과 四端七情을 논할 때, “四端은 다 善하므로 孟子가 말하기를 ‘四者(羞惡, 惻隱, 辭讓, 是非)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하였으며, 또 ‘그 情인즉 善을 할 수 있다’ 하였습시다.”⁷⁾라고 했으며, 栗谷도 “대개 보통 사람들도 聖인과 더불어 그 本性은 한가지니, 비록 氣質은 맑음과 흐림 순수함과 뒤섞임의 다름이 없지 않으나, 다만 참답게 알고 실천을 통하여 져어온 舊習을 버리고 그 本性을 회복하면 털끝만치 보태지 않아도 온갖 착함이 구비됨에 족할 것이다.”⁸⁾라고 하여, 비록 氣質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타고난 本性은 善하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또 《書經》에서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죄가 아니다.”⁹⁾라고 했다. 즉 유아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아의 죄가 아

6) 《小學》 : 題辭, “仁義禮智 凡此厥物 無有不善.”

7) 민족문화추진회 : 퇴계집 I, 서울, 경인문화사, 1977, p.266

8) 李珣著(張聖澤譯) : 擊蒙要訣, 강릉, 문왕출판사, 1966, p.26

9) 《書經》 : “赤子匍匐將入井 非赤子之罪也”

니라 보호를 잘못된 成人의 책임이다. 바로 이 점에서 유아는 보호의 대상이며 長育의 當爲性을 갖는다.¹⁰⁾

그리고 가장 연약하고 무지한 어린아이를 理想的인 人物과 비유하기도 했다. 孟子는 離婁章句下에서 “大人이란 그의 어린이 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¹¹⁾ 라고 했다. 孟子가 君子와 赤子を 비교한 것은 赤子の 순진무구한 모습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¹²⁾ 《禮記》에 보면 “七세된 아이를 悼라고 한다. 悼와 耄(80이상 노인)는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형벌을 주지 않는다.”¹³⁾ 라고 하였고, 內則에서는 “어린이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먹고자 하는 것은 때없이 먹는다.”¹⁴⁾ 라고 하여 유아시절에는 자연스런 성장을 지켜보았으며 죄를 범하더라도 私慾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행동으로 知覺되었기 때문에 형벌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¹⁵⁾

佛敎에 있어서 普照禪師의 《修心訣》에서는 “漸修라고 하는 것은 비록 本性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오랫동안의 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의해서 닦되 차츰 익혀서 그 功이 이루어져 聖胎를 길러 오랫동안 안을 지나 聖人이 되기 때문에 漸修라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몸의

모든 부분이 남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힘이 아직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낸 뒤라야 成人이 되는 것과 같다.”¹⁶⁾ 라고 하였다. 佛敎에서 생각하는 유아는 佛性을 지니고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리고 無의 상태에서 有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業을 수반하고 태어남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성장능력을 가지고 主體의로 살아간다. 즉 能動的인 삶이 나오는 것이다. 이 能動的인 삶은 유아들의 개인차를 시인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業은 의식의 작용이므로 業이 성립되기 이전의 모습이 인간에게는 內在되어 있다. 그것이 곧 佛性이다. 인간은 佛性의 세계를 直觀함으로써 業을 초월하여 생각할 수 있는 聖人의 세계에 이른다. 유아도 聖인과 마찬가지로 이 능력과 힘이 보유되어 있다는 것이 佛敎의 佛性說이다.¹⁷⁾

또 佛敎는 理想的인 人物을 佛陀 또는 菩薩이라 하였고, 유아의 행위를 理想的인 人物들의 행위에 비유하여 幼兒行이라고 했다. “善男子야 무엇을 嬰兒의 행동이라고 하느냐 하면 善男子야 능히 일어나고 거주하고, 오고, 가고, 말하는 것을 嬰兒라고 한다. 如來도 이와 같으리라.”¹⁸⁾ 라고 하였다.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特經》에서도 嬰童心이라고 하여 修行의 최고경지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설명했다.¹⁹⁾

10) 張敬道 : 東洋의 幼兒觀에 對한 比較考察, 원광대학교 教育대학원, 유아教育전공, 1989, p.13

11) 《孟子》 : 離婁章句, “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也”

12) 張敬道 : 前揭書, p.14

13) 《禮記》 : 曲禮上, “七 曰悼. 悼與耄 雖有罪 不加刑焉.”

14) 《禮記》 : 內則, “孺子 蚤寢晏起 唯所欲 食無時.”

15) 張敬道 : 前揭書, p.4

16) 普照禪師, 《修心訣》 : “漸修者 頓悟本性與佛無殊 無如習氣 難卒頓除故 依悟而修 漸熏力成 長養聖胎 久久成聖故, 云漸修. 比如 初生之日 諸根見足與他無異然其力未克 頗經歲月 方始成人.”

17) 張敬道 : 前揭書, pp.29~30

18) 《大般涅槃經》 : 兒行品, “善男子之何 名嬰兒行 善男子 不能起住來去語言 是名嬰兒 如來亦爾”

老子는 《道德經》에서 “하늘에서 부여 받은 德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비유할 수 있다.”²⁰⁾라고 하여 어린아이의 행동을 理想的으로 생각했다.

2.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教育方式

1) 傳統社會의 養育方式

胎敎로부터 시작하여 처음 2~3년간의 子女養育과 訓育에 관련된 우리나라 傳統社會에 있어서의 育兒法은 최근에 많이 밝혀진 영아와 유아발달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환경적인 요소, 부모의 역할에 너무나도 잘 맞는 것이라고 하겠다.²¹⁾

과거의 傳統社會의 育兒法 중에서 대표적으로 授乳方式과 排便訓練, 大家族制度, 양밥²²⁾이 소아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傳統社會의 授乳方式

傳統社會에서 한국인의 授乳方式은 원할 때는 언제나 母親의 가슴을 향유하며, 동생이 생길 때까지 늦도록 젖을 먹을 수 있었다. 젖이 맛있지 않아도 빨아 먹었고 동생에게 물려주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심리를 고려하여 離乳 후에도 祖母의 빈 젖가슴으로 대신해 주었고, 따스한 등에 업고 체온을 나눌 수 있도록 길렀다. 특히 업는 방법이 胎中에 있을 때의 자세와 흡사하여 가슴 가득 母親이나 祖母의 등을 안게 함으로서 아기에게 안정감과 만족스런 경험을 줄 수 있었다. 현대한국 농촌

에서는 아직도 생후 2~3년간 계속 授乳를 허용하고 있고 離乳는 노년층보다 젊은 엄마가 더 일찍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傳統社會의 수유기간의 잔재로 볼 수 있다.²³⁾

대체로 傳統의인 育兒法의 면모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한국 농촌社會의 育兒慣行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농촌가정에서는 생후 2~3년간 계속 授乳를 허용하고 있고, 국, 국물 등 流動食으로 離乳食을 대신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母親의 연령별로 보면 젊은 엄마가 離乳에 더 신경을 쓰고 離乳가 지연될 경우에도 더 야단을 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²⁴⁾ 오히려 지나치게 늦은 離乳가 구강의 지나친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지나친 구강의 만족은 낙천적 사상을 자아내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²⁵⁾

授乳方法 또는 養育方法이 유아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愛情이 유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教育的 영향에 관한 문제이다. 예컨대, 母親의 가슴에 안겨 授乳받는 동안 모친의 왼편 가슴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胎中에서의 환경과 흡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다 만족스럽고 안정된 상태에서 감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고, 행복감에 젖어들면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손길에서 오는 체온과 포만된 애정의 경험이 나중에 세계와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한다.²⁶⁾

(2) 傳統社會의 排便訓練

19) 張敬道 : 前揭書, p.41

20) 老子, 《道德經》: “含德之厚 比於赤子”

21) 홍강의 : 前揭書, p.52

22) 양밥[糲法] : 傳統社會의 民間信仰에 기초하여 傳統社會다운 象徵體系에 의존한 心理療法으로 厄을 타인이나 타사물과 대상에게 轉移시킴으로써 그 災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方術을 말함.

23) 柳岸津 著 :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教育, 서울, 正民社, 1982, pp.85~86

24) 上揭書, p.91

25) 上揭書, p.86

26) 上揭書, p.84

전통사회에서 유아기의 排便訓練은 授乳態度가 너그러웠던 것처럼 그리 엄격하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용변을 보도록 유의해 주었고, 잠자는 도중에도 깨워서 용변을 보게 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는 祖母와 함께 기거하였으므로 배변 훈련도 저절로 祖母의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育兒經驗이 많은 祖母로서는 젊은 母親보다 관용스런 훈련태도를 취했다고 한다.²⁷⁾ 두세살 이상이 되었을 때 排便訓練은 授乳態度가 너그러웠던 것처럼 엄격하지는 않았고 배변훈련이 저절로 쉽게 祖母에 의하여 무섭지 않은 방면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성격적으로 강박적이거나 긴장되지 않고 시간과 약속지키기에 과민하지 않은 너그럽고 적당주의적인 그러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 성격적 구조로 성장하였던 것 같다.²⁸⁾ 그리고 유아는 離乳나 大小便가리기 등으로 본격적으로 자율적 존재가 되어 가면서 자율감을 맞출 수 있게 된다.²⁹⁾

夜尿症이라고 문제시할 때는 적어도 大小便가리기 훈련을 완성할 나이가 지난 아동일 때, 즉 5세 이상의 아동일 때라야 오줌싸개라고 문제시켰다.³⁰⁾ 구체적으로 이 시기의 아동이 밤에 용변을 못 가렸을 경우에 成人들이 벌칙을 가하는 風俗을 보면, 오줌 싼 아동에게는 이른 아침 키를 썬고 빈 그릇을 손에 들려서 이웃집에 소금을 꾸러 보낸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이 아동을 맞아서 소금을 꾸어주기는

커녕 부지깽이를 들고 나와 키를 두드리면서 쫓아내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있던 큰애들이나 성인들이 웃으며 흉을 보게 된다. 오줌 싼 아동은 놀라고 부끄러워 울며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연극은 아동의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용변 가리기에 스스로 신경을 쓰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꾸며진 것이다.³¹⁾ 즉, 전통사회에서는 7세부터는 性別에 따라 男女의 性役割教育을 본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夜尿症 같은 退行에, 成人들은 철회했던 애정을 충분히 표시하여 치료도 하지만, 혹시 애정의 표시가 아동을 유아기에 집착시키는 또다른 退行의 원인이 될까 염려했다. 또한 애정 표시의 효과가 다른 단계의 性役割教育에 방해가 될까 염려했다. 왜냐하면 性役割教育의 내용은 아동을 어른으로 대우하여 成人 男女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요법을 취하여 아동이 거의 불가능한 유아기의 행복감에 젖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통을 참는 인내와 견고성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³²⁾

(3) 傳統社會의 大家族制度

한국 전통사회의 가족은 소위 擴大家族이다. 즉 父子中心의 縱橫관계로서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등의 가족사회와 同類에 속한다. 확대가족 즉 대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중 하나로서 혼인의 목적이 家系의 연속과 발전을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出産하는 그 구성적인 특성과 함께 가족의 규모가 자연히 크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규모의 대가족가정사회에서 아동이 社會化되어 가는 특성

27) 上揭書, p.92

28) 홍강의 : 前揭書, p.53

29) 柳岸津 著 : 前揭書, 1982, p.93

30) 柳岸津 著 :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1985, p.70

31) 柳岸津 著 : 前揭書, 1982, p.104

32) 柳岸津 著 : 前揭書, 1985, pp.70~71

은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成人이 부모 이외에도 더 있어서, 그들이 育兒에 영향을 줌으로써 의존적인 성격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에서 아동은 세상을 절대적인 黑白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자란다고 한다. 아동은 성인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아동자신만의 독립된 생활 공간을 갖지 않으며, 가능한 빨리 成人의 세계로 들게 하는 특징도 보인다. 그래서 '점잖다'는 칭찬은 아동의 教育을 위한 이러한 성인기준의 가치를 표현한 것이며, 어릴 때부터 성인세계의 裏面의 곡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早期經驗은 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으로서 대가족사회의 장점이 될 수 있다. 自發的 學習段階의 아동에게 일관성은 없었으나 때로 동생에게 사랑을 베풀고 양보하는 형으로서의 역할이나, 동생으로서 형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역할을 기대했던 것도, 성인의 세계에 들어간 役割教育段階 직전의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³³⁾ 學齡前期의 경험도 다세대대의 대가족제도 하에서 4~6세의 아동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남녀의 상호교환도 단순히 엄마, 아빠의 관계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기타 다양한 여성상과 남성상을 접함으로서 강렬한 오이디푸스 복합체의 경험이 분산되고 비교적 쉽사리 그 위기를 지나가는 경향이 있었다.³⁴⁾

대가족사회가 아동교육에서 보였던 좋은 점을 정범모³⁵⁾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거기에는 老人中心이었으며 할아버지가 家長이었다. 할아버지가 명령했고, 아버지가 일했고, 어린이는 아버지의 訓育과 할아버지의 庇護하에 자라났다. 모두가 가난에는 허덕였을 망정 제 자리 제 일이 있었고, 특히 어린이의 입장에서 언제나 의지하고 이야기하고, 이를 수 있는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로는 아주머니, 삼촌- 이 있었다.” 정범모는 이러한 전통적 가족사회가 아동의 훈육과 보호 등 정서적 안정감이나, 올바른 질서감의 발달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문화인류학자 Mead의 한 소설내용을 상기하였다. 즉 한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는 兩性三世代, 즉 祖父, 父, 母, 子息이 있어서 각기 자기 위치에서 제대의 활동을 하면서 서로 밀도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이 필요하며, 그 중 一人의 不在는 이러한 관계의 균형파탄, 왜곡, 단절을 초래하여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차질과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Mead는 미국의 핵가족제도를 비판하면서 전통사회의 老人世代는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祖父母世代를 모르거나,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조부모와 떨어져 자라난 아동은 그만큼 문화적 손실을 본다고 했다. 조부모와 심리적 유대 속에서 자라난 아동은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며, 어려서부터 결혼과 출생과 사랑과 미움과 협동과 질병 등의 갈등을 비롯한 全人生과 죽음까지 배우는 셈이며, 父母가 된다는 것, 늙어서 祖父 祖母가 되고 그리고 죽어서 영혼의 세계까지 來往하는 祭祀의 의미까지 어렵듯이 느끼며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人間事의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는 기술을 터득하

33) 柳岸津 著 : 前掲書, 1982, p.108

34) 홍강의 : 前掲書, p.53

35) 鄭範謨 : 國家發展과 어린이, 서울, 培英社, 1976, pp.33~47

고, 어린 나름대로 어렵풋하게나마 인생의 쏠윤곽을 조감할 수 있는 눈을 키워가게 된다. 대가족사회에는 아동은 주로 成人에게 배우는 後察의 文化와 주로 동년배 아동들에게서 배우는 共察의 文化, 주로 成人이 아동으로부터 배우는 先察의 文化라는 Mead의 표현이 共存한다고 볼 수 있다.³⁶⁾

(4) 양밥[穰法]

傳統社會는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不適應上의 行動(버릇)을 矯正하는 데에 心理的인 접근 방법을 이용했다.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아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동과 특별한 애정 관계를 형성한 가족이 아동의 여러 가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民間處方을 穰法이라고 漢字로 쓰이며, 양밥이라고 속칭되어 왔다.³⁷⁾

전통사회에서 창안하여 발전시키고 사용했던 아동을 위한 양밥 즉 民間處方은 厄을 타인이나 타사물과 대상에게 轉移시킴으로써 그 災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方術이다. 따라서 이 양밥은 전통사회인들의 民間信仰에 기초하여 전통사회다운 상징체계에 의존한 心理療法로서 각종 재난을 물리치는 방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아동심리요법으로서 豫防醫學의 성격도 띠고 있다. 邪鬼가 모든 질병을 조종한다는 전통사회다운 발상에서 창출된 대부분의 예방의학적 방법은 귀신을 속이거나 겁주거나 유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돌림병이라는 전염병까지도 病魔 즉 귀신의 짓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귀신을 속이거나, 어르고 달래는 방법과 통했다. 예컨대, 새 아기가 태어나면 대문이나 사립문에 금줄을 걸어 두는데, 이것은 귀신으로 하여금 產室을 찾지 못하도록 원새끼를 꼬아서 막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外人 출입을 통제시켜 산모와 아기에게 잡병균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함이었다. 또 어린 아동에게 개똥이, 바우, 뽕이 등의 兒名을 지어 부르는 것도 귀신이 더럽다고 접근하지 않도록 하거나, 바위라는 막강한 힘이 지켜 주면 귀신이 무서워한다는 생각과 漢字에 뽕字가 없으므로 뽕이라 이름지으면 귀신이 몰라서 못 잡아 간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귀신을 달래거나 속이거나 또 겁을 주거나 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은 때로는 설날, 정월 대보름, 추석 등 歲時의 風俗과 함께 결합하여 歲時風俗놀이로서도 발전되었다. 그래서 세시풍속놀이이면서도 심리 예방 또는 치료법이 생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무시로 전염병이 돌 때마다 어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박한 아이디어로 전통적인 상징체계를 이용한 임기응변식의 주술적 방법으로도 대처하게 했으니, 돌림병이 번질 때는 ‘화장실 푸기’나, ‘고추씨 태우기’, 까마귀가 울면 불길하다는 인식 때문에 ‘까마귀가 울고 간 쪽으로 침을 세 번 뱉는 행동’, 등도 곧 이런 예방 방법이라 하겠다.³⁸⁾

2) 傳統社會의 教育

(1) 傳統社會의 教育觀

朝鮮時代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은 儒敎的 토대위에 성립되었으며, 儒敎는 당시인들의 일상생활에 강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人性형성에까지도 영

36) 柳岸津 著 : 前掲書, 1982, pp.108~110

37) 柳岸津 著 : 前掲書, 1985, p.25

38) 柳岸津 著 : 上掲書, 1985, pp.23~24

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에서 아동교육은 유교의 범주와 유교적 색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교육은 儒敎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할 수 있다.³⁹⁾ 傳統社會의 教育觀은 儒學 및 儒敎社會의 教育觀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朝鮮時代 儒學의 학문적 경향이었던 性理學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문제를 형이상학적으로 해명하려는 철학적인 유학이다. 성리학은 存養(存心養性)과 窮理를 목표로 삼는다. 存養이란 항상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天賦의 本性을 잘 기른다는 뜻이고, 窮理란 道理를 窮究한다는 말로서 지식을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다. 성리학자들은 이것으로써 우주의 근본원리를 탐구하며 天, 人의 관계를 간과하고 人間當爲의 本務를 발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宇宙哲學으로 倫理哲學을 설명하고 이 윤리철학으로 教育哲學을 연출하였다. 이 교육철학에서 교육의 목적이 성립되었으므로 교육의 목적은 윤리 도덕에 중점을 두어 善人을 양성하는데 있고 최종 목적은 聖賢의 자리에 도달하는 데 있었다. 교육의 목적에서 교육의 방법이 생기는 것이므로 性理學派의 교육방법은 다 聖賢의 하던 일을 본뜨는데 있었다.⁴⁰⁾

儒學에서 “배움은 날로 쓰고 행함에 있으니 만일 평상생활에 처해 삶에 공손하며, 하는 일에 공경하고 남과 사림에 충실하면 이것을 학문한다고 하는 것이니 - 후략-”⁴¹⁾라고 한 바와 같이 유교의 학문

은 대부분이 일상에 대한 바른 삶의 교육이었다.⁴²⁾

유교적 학문의 중요 의의를 가르치는 것으로 “착한 것을 밝혀서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明善而復其初)” 즉, 원래의 착한 本性을 회복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儒家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학문의 목표는 즉 밝은 덕을 밝히고(明明德) 고귀한 품성을 배양하는 데 있으며 또한 백성을 새롭게 하고(新民) 人才를 양성하고 다스리는 데에 있다고 했다. 이 견해는 《大學》의 서두에 나오는 “大學의 道는 밝은 德을 밝히는데 있으며 百姓을 새롭게 하는데 있으며 지극히 착한데 머무름에 있다.”⁴³⁾는 말에서 연유하고 있다. 이것은 학문의 목표를 개인적인 자아실현(明明德), 사회적인 자아실현(新民)과 도덕적인 자아실현(止於至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⁴⁾

儒敎社會에서는 初期教育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數와 文字學習을 다루었다기보다 人品形成教育, 禮節教育 즉 인간으로 바르게 행동하고 좋은 品性을 지니도록 하는 倫理教育이 근본이 되었다고 본다. 張橫渠의 어린이 教育論을 보면 “선생이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안정하고 자상하고 공손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지금 세상에서는 학문을 강구하지 아니하며 남녀가 어릴 때부터 교만하고 태만하며 행실이 나쁘고 장성하게 되면 더욱 흉악하고 사나워진다. 일찍이 子弟로써 할 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도 별써

39) 柳點淑 : 前揭書, p.7

40) 郭成基 : 朝鮮朝 “小學”의 教育的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教育學科, 1988, pp.13~14

41) 李珥著 (張聖澤譯) : 前揭書, p.36

42) 柳點淑 : 前揭書, p.8

43) 《大學》,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

44) 柳點淑 : 前揭書, p.100

남과 나의 관념이 있어서 몸을 굽혀서 낮추기를 즐겨하지 않는다.”⁴⁵⁾라고 하였고, 楊文公의 家訓에서도 “어린이의 배움은 암기하고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 良知, 良能을 길러 주어야 하니 먼저 들려주는 말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중략- 오래 마음에 젖으면 덕성이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것 같은 것이다.”⁴⁶⁾라고 하였다. 유교사회는 인륜사상인 만큼 초기교육은 학문과 생활윤리가 별개로 취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道는 반드시 人倫에 근본을 두고 사물의 이치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들은 가르침은 小學의 灑掃應對에서 부터 시작하여 나아가 孝, 悌, 忠, 信의 도리를 닦고 -중략- 그렇게 하면 한낱 시골사람으로도 聖人の 道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⁴⁷⁾라는 사상 때문이었다. 더욱이 유교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聖人, 君子象이 지극히 倫理的인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유교의 교육이나 학문은 주로 윤리적인 면에 치중하였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이룩하는 데는 어린 시기 즉 知覺이 열리기 전에 기틀을 잡아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⁴⁸⁾

朝鮮時代 대표적인 儒學者인 栗谷은 학문의 목적을 “배움은 날로 쓰고 일을 행함에 있으니, 만일 평상 생활에 처해 삶에 공손하며 하는 일에 공경하고 남과 사귄

에 충실하면 이것을 학문한다고 하는 것이니 책을 읽는 것은 이 이치를 밝히고자 하는 것뿐이다.”⁴⁹⁾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간됨의 학문을 중요시하면서 평소 생활에 공손하며 하는 일에 공경하며 남과의 사귄에 있어서도 충실한 生活倫理에 중점을 두어 바람직한 생활 그 자체를 학문으로 간주했다.⁵⁰⁾

栗谷은 교육목적으로서 聖人の 길을 準則으로 하고 日用當行의 길을 밝히는데 두었다. 그는 교육의 理想과 現實을 조화하는 가운데서 교육의 목적을 찾고 교육 방법은 實踐倫理를 강조하고 있다.⁵¹⁾ 聖人이 되려면 濁駁한 氣質은 淸粹한 氣質로 고쳐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곧 교육의 과제로 보았다.⁵²⁾ 사실상 栗谷이 중요시 한 것은 지식의 섭취가 아니라 학생의 氣質變化 또는 本源의인 善을 기르기 위한 氣質의 刷新이며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주체성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栗谷은 사람에 따라서 氣質에 차이가 있으므로 知的, 行的 능력이 다르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읽어야 할 책의 종류 및 내용과 순서도 사람의 知的, 行的 능력수준에 맞게 정한 것이었다. 栗谷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했던 교육 목적은 聖人이다. 聖人の 氣質은 純粹하여 能知, 能行하므로 사고와 행동이 자연스럽게 도리에 맞지만 凡人の 氣質은 濁駁하여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凡人들도 교육과정에 제시된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게 하여 聖賢의 道에 들

45) 《小學》, 外篇, 廣立教, “橫渠張先生曰 教小兒先要安詳恭敬 今世 學不講男女從幼便驕惰壞了 到長益凶狠 只爲未嘗爲子弟之事 別於其新 已有物我 不肯屈下”

46) 《小學》, 外篇, 廣立教, “楊文公家訓曰 童稚之學 不止記誦 養其良知良能 當以先入”

47) 《小學》, 外篇, 善行, “明道先生 …… 其道必本於人倫 明乎物理其教自小學 灑掃 應對以往 修其孝悌忠信 -中略- 自鄉人而可至於聖人之道”

48) 張敬道 : 前揭書, pp.18~19

49) 李珣著 (張聖澤譯) : 前揭書, p.36

50) 柳點淑 : 前揭書, pp.102~103

51) 任五淳 : 栗谷의 教育思想 研究, 원광대학교, 教育대학원, 1999, p.34

52) 上揭書, p.33

어가게 하려고 하였다.⁵³⁾

한편 栗谷은 理想的인 人間形成을 내세우면서도 日用處事에 합당한 학문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⁵⁴⁾ 栗谷의 교육과정은 바로 그 생활자체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聖學輯要》에서도 밝히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학문이 일상생활 속에 있는 줄은 모르고 망념되게 높고 멀어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사람에게 미루고 자신은 자포자기하니 어찌 불쌍하지 않으랴”고 개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교육은 自發的, 能動的 自己教育이 주가 되며 그 과정도 生活 中心 교육과정이다. “이른바 學問이란 오뚝이 端坐하여 終日 讀書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일상생활에서의 處事가 하나 하나 이치에 맞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직 이 이치에 合當함과 아니합과를 능히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讀書하여 그 理致를 구하는 것이니 讀書로서 學問을 일삼고 日常生活에서의 處事에 合當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學問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栗谷은 教科中心, 理論中心의 교육을 배제하고 日常生活 속에 교육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의 교육과정은 생활 그 자체로서 經驗主義的, 自然主義的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⁵⁵⁾ 따라서 栗谷의 教育 目的觀은 현실 중심의 實際性과 實踐性의 가치를 지향하여 非現實的인 학문을 바로잡고 現實性을 다시 찾아 事實에서 옳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⁵⁶⁾

(2) 胎教

53) 上揭書, pp.41~42

54) 上揭書, p.33

55) 上揭書, p.35

56) 上揭書, p.33

胎教란 韓國大辭典⁵⁷⁾에 의하면 “妊婦가 胎兒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 마음, 감정 등을 淨化시키는 일”로 정의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개념의 정의로는 지금송⁵⁸⁾의 정의로서 “胎教는 문자 그대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받는 교육, 즉 임신중 어머니의 온갖 행위다”라고 교육이란 각도에서 본 것과 柳岸津⁵⁹⁾의 “妊婦가 胎中의 아기를 인간으로 형성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란 정의가 있다. 위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胎教란 胎兒에게 교육적 胎內 環境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母親이 행하는 교육적 노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⁶⁰⁾

人間教育에 대한 한국 전통사회의 태도는 대단히 엄격했다. 그래서 인간의 교육은 마땅히 태어나기 이전 즉 孕胎 이전 兩親의 자격을 중요하게 보았다.⁶¹⁾ 잉태하기 위해서 먼저 양친이 될 母體와 父體는 心身이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사회의 생각이었다. 《東醫寶鑑》 雜病篇 求嗣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求嗣의 道는 婦人은 經度가 고른 것을 요구하고 男子는 精이 못한 것을 요구하며 또 慾心이 적고 마음이 맑은 것이 上策이 되나니 욕심이 적으면 妄佞되게 交合하지 아니하며 氣를 쌓고 精을 모아서 때를 기다려 움직이는 고로 자식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함으로 욕심이 적으면 精이 완전하여서 자식이 많을 뿐만 아

57) 한국어대사전 편찬위편 : 한국어 대사전, 현문사, 1976, p.1675

58) 지금송 : 태교와 그 의의, 가정교육 42, 1962, pp.16~17

59) 柳岸津 : 예술의 소우주(어린이를 알자), 서울, 培英社, 1979, p.8

60) 柳岸津 著 : 前揭書, 1982, pp.23~24

61) 上揭書, p.22

니라 또한 年壽도 많아지는 것이다.(入門)⁶²⁾ 즉, 《東醫寶鑑》에서는 잉태 이전에 兩親은 신체적 건강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건강한 상태는 건강한 胎兒의 잉태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잉태 이전의 兩親의 심리적 건강을 중요하게 보았는데, 심리적인 건강상태가 신체적인 상태와 관련된다고 보았다.⁶³⁾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新生兒는 이미 母親을 통하여 胎中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교육에 대해 한국 전통사회가 가졌던 이렇듯 신중한 태도는 두가지 관점에서 합리화되어 왔다. 첫째는 생명의 존엄성 및 태아에게 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전통적인 한국식 연령계산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인격체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갓 태어난 유아는 0세가 아니라 곧 1세이다. 둘째는 인간의 교육이란 생명의 잉태이전과 잉태 중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教育觀이다. 인간교육에 대한 이렇듯 준엄한 태도에서, 잉태 전에 母體와 父體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兩親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잉태한 다음에는 胎中 아기가 知的으로나, 情緒的, 身體的으로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胎敎가 강조되었다.⁶⁴⁾

師朱堂 李氏는 《胎敎新記》에서 胎敎의 이치를 제1장과 제10장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1장에서는 자식의 기질이 부모에 있기 때문에 胎敎가 중요함을 논하고 있다. “인생에 있어서 성품은

선천적인 것이나 기질은 후천적인 것이니, 이 기질을 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온전히 父母의 맡은 바 소임이니, 부모된 자로서 이 사명을 안다면 자녀들의 교육을 어찌 소홀히 하리요,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길러주심 스승의 가르치심이 모다 한가지라, 의술의 뛰어남은 예방에 있듯이, 가르치기를 잘 한다는 것은 스승에게 10년을 배우기보다 태중교육 10개월이 더 중요하다.” 胎敎가 중요한 까닭은 자식의 기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음인데, 이것은 胎中교육 10개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태어난 후 스승에게 10년 수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胎敎新記》 제 10장에서도 胎敎의 중요한 근본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래 태교라고 부르는 것은 자손을 위한 것으로 아내 혼인과 딸이 남편 맞이하면서 반드시 효도롭고 공손하거나와 대대로 올바른 일을 행하는 이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군자의 가르침이 본래 이루어지기에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책망이 바로 아내에게 있으므로 어진 자를 가리어 변변치 않은 자를 가르침은 자손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 진실로 성인의 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없으리라” 胎敎의 중요성은 훌륭한 자식을 기르는데 있고, 훌륭한 자식은 아내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聖人の 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힘겨운 胎敎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母親의 胎敎가 중요한 것은 胎中 10개월을 모친에게 의지하고 자람이며, 그러므로 대체로 자식이 모친을 닮게 되므로 보통사람으로서는 행하기 힘든 행동을 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母親의 胎敎 여하가 胎中 아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62) 許浚著 (許珉譯) : 東醫寶鑑(下卷) 雜病篇 卷10.11, 東洋綜合通信大學 教育部, 1974, p.50

63) 柳岸津 著 : 前掲書, 1982, pp.24~26

64) 上掲書, p.22

思考에서, 보다 엄격한 胎敎 실천과 까다로운 胎敎 내용이 요구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⁶⁵⁾

(3) 生活敎育

傳統社會에서는 容儀와 言行을 중요시하여 태아기부터 간접敎育을 실시하였다. 출생하여서도 신체 조정과 언어능력이 습득되면 곧바로 옷입기, 대답법 등을 훈련하였다. 儒家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때 그 기준을 생물학적인 면에 두지 않고 禮의 有無로 정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禮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으로 容儀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제반 容儀가 바르고 가지런하고 순할 때에 禮儀가 갖추어진다고 보았고, 이 禮儀가 갖추어진 뒤에야 비로소 五倫의 도리도 바르게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⁶⁶⁾

《小學》 券之三 敬身篇에 보면 “《禮記》에 말하기를, 군자의 용모는 한적하고 아취가 있는데 존경해야 할 사람을 보면 곧 공손히 한다. 발의 동작은 무거운 듯이 하며, 손의 동작은 공손하게 하며, 눈의 동작은 단정하게 하며, 입의 동작은 함부로 않으며, 소리를 내는 동작은 딸꾹질하는 듯이 않으며, 머리의 동작은 바르고 곧게 하며, 호흡하는 동작은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하며, 서있는 동작은 반듯이 서서 기대지 않고 엄정하여 덕이 있는 기상으로 하며, 얼굴빛은 장중하여 자부하는 듯이 한다.”⁶⁷⁾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소위 九容이라 하여 傳統社會의 童蒙

敎育에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몸가짐으로 강조하였다.

傳統社會에서는 九容에 어긋나는 모습을 피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士小節》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서 입을 항상 딱 벌리고 있는 것은 바른 몸가짐이 아니다. 눈동자를 굴리고 안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오래 형클어져 있는 징조이다. 손으로 허공에다 글씨를 쓰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것이다. 붓에 침이나 물을 묻혀 베투면이나 베투 뚜껑에 어지럽게 써서 산만하여 질서가 없으면 마음도 이에 따라 산만해지고 잘못되는 것이니 가히 두려워할 것이다.⁶⁸⁾ -중략- 일어나고 앉고 서고 할 때는 꼭 단정하고 장엄하게 하기를 힘써야지 기대거나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일에 게을러질까 염려함이다.⁶⁹⁾” 즉, 九容에 어긋난 몸가짐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며, 형클어지고, 어두워지며, 게을러지게 되어서 수양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또 수양을 하지 못하게 되면, 행동도 역시 경솔하고 수선스럽고, 거칠며, 천박해지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容儀를 바르게 유지함으로 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밝게 하고, 공경스럽게 할 수 있고 따라서 행동도 역시 침착하고, 단정하며, 조심스럽고, 우아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九容을 잘 지키도록 훈련하려 했고 만약 훈련이 잘 되면 반드시 훌륭한 선비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傳統社會의 敎材에서는 오늘날처럼 ‘心身’이라는 표현을 하지

65) 上揭書, pp.35~36

66) 柳點淑 : 前揭書, p.41

67) 金星元譯 : 小學, 서울, 明文堂, 1986, p.254

68) 李德懋 (金鍾權譯) : 士小節, 서울, 明文堂, 1985, p.278

69) 上揭書, p.298

않고 '身心'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몸가짐이 마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생각한다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九容의 근거를 살펴보면 九容이란 《論語》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聖賢, 특히 孔子의 모습과 행동특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 이것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조선시대 儒인들이 學問이나 修養의 목표를 바로 聖人됨에 두었기 때문이다. 現代의 心理學에 의해서도 九容은 불안시의 행동특성과 대조되는 안정시의 행동특성군으로, 또 건강한 심리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역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몸가짐으로 인식된다.⁷⁰⁾

朝鮮時代에는 작업도 儒敎的 德性을 기르기 위한 수양의 한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일정한 법도가 있었다. 이를테면 《士小節》에서는 책을 때는 것을 예로 들어 일을 정하고, 상세하고 바르고 가지런히 하도록 하였고, 《童蒙修知》에서는 책, 붓, 벼루 등 모든 기구가 엄숙히 정제되어 제자리에 있도록 정돈해야 한다고 하고, 청소를 할 때도 먼저 도구를 갖추어 물뿌린 뒤에 쓰는 등 순서를 따라 하고, 티끌이나 먼지가 어른에게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도록 가르쳤다. 동시에 작업은 童蒙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여 권했다. 栗谷이 지은 《學校模範》 讀書條에서도 “독서하는 여가에 울타리를 엮고, 담을 쌓고, 뜰을 쓸고, 거름을 치고, 말을 먹이고, 도랑을 치고, 쌀을 찧는 등 일을 때때로 한다면 몸이 굳

세어지고 뜻도 정하여질 것이다.”⁷¹⁾라고 하였다. 童蒙教育에서의 작업은 단순히 일 자체를 바르고 반듯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업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공경하는 태도도 기르며 나아가 德을 쌓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⁷²⁾

栗谷의 自警文에는 “만가지 악이 모두 다 혼자 있을 때에 삼가지 않는 거기서 생겨나느니라. 혼자 있을 때 삼갈 줄 안 다음에라야 참으로 저 자연을 사랑하며 즐길 수 있는 고상한 뜻을 알 수 있느니라.”⁷³⁾라고 하였고, 《筆語》에서도 謹獨章을 두어 홀로 있을 때 조심할 것을 깨우치고 있다. 비단 여러 사람 앞에서 행동할 때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역시 행동거지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은 현대의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볼 때 자기 원리의 도덕성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 개인의 신조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성숙된 인격이다.⁷⁴⁾

(4) 讀書法

朱子의 讀書法 중에 '順序漸進'이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順序'의 방법이 곧 교재의 객관적인 순서와 학생의 주관적인 능력에 따라 독서교재를 정해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당시의 童蒙教材에 나타난 독서순서는 아동교육에 있어서 일종의 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⁷⁵⁾

栗谷은 聖賢의 道를 배우는 데는 무엇보다 먼저 讀書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70) 柳點淑 : 前揭書, pp.45~46

71) 李珣著 (張聖澤譯) : 前揭書, p.91

72) 柳點淑 : 前揭書, pp.58~59

73) 李珣著 (張聖澤譯) : 前揭書, p.122

74) 柳點淑 : 前揭書, p.64

75) 上揭書, p.112

“道에 들어가는데 理致를 窮理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할 것이 없으니 이것은 聖賢의 마음을 쓴 자취와 善惡의 본받을 만한 것, 경계할 만한 것이 모두 책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道는 天理 그대로의 本然의 性을 따르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天理를 窮究해야 한다는 것이다. 聖賢들은 天理 그대로의 本然의 性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이므로 그 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담은 책을 읽는 것이 窮理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栗谷은 讀書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初學者들을 위하여 읽어야 할 책의 종류와 읽는 순서에 대하여 그의 저술인 《聖學輯要》, 《擊蒙要訣》, 《學校模範》 등에 讀書章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栗谷의 教育課程이다. 栗谷이 이와 같이 읽어야 할 책의 종류와 순서를 선별하여 정한 것은 개개의 인간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어 知行能力이 다 다르므로 지적 발달의 정도에 맞게끔 책을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순서를 정한 것이라고 본다. 栗谷은 각자의 기질에 따른 지적 발달수준에 맞도록 글을 읽게 함으로써 개성이 맞게끔 교육을 하려고 한 것 같다.⁷⁶⁾

(5) 藝術教育

“열 세 살이 되거든 음악을 배우고 詩歌를 외우며 勺으로 춤을 추게 하고, 열 다섯살 이상이 되거든 象으로 춤추며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게 할 것이다.”⁷⁷⁾라고 하여 儒家에서도 童蒙期에는 노래와 춤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禮가 외모를 닦는 것과 같이 노래와

춤이 마음을 닦아 性情을 부드럽게 하고, 情操와 도덕심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덕있는 사람의 음악은 盡美할 뿐만 아니라 盡善하다고 생각했고, 공자도 韶란 음악을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하다고 했다. 춤을 출 때에는 북을 쳐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서 먼저 勺舞(勺을 가지고 추는 文舞)를 추게 하고 다음에 象舞(象으로 추는 武舞)를 배우게 했다.⁷⁸⁾

(6) 教授法

《禮記》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스승의 역할을 논하고 있다. “君子는 마땅히 教育의 興의 근본을 알고, 教育의 廢의 근본을 안 후에 남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자가 남을 教諭하는 데는 급히 이끌지 않고 학생으로서 지력이 있는 자는 발분하기를 기다려 이를 격려할 뿐 누르지 않으며, 그 마음의 단서·대의를 열어 줄 분 통달하게 하지 않는다. 급하게 이끌지 않는다면 곧 마음이 和樂하여,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고, 지력이 있는 학생은 그 발분을 기다려 이를 격려하고 이를 억누르지 않는다면 곧 학문을 즐거워하고 쉽게 여겨 힘쓸 것이며, 또 그 단서·대의를 여러주고 학생으로 하여금 전체, 또는 지엽에 대해 통달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학생이 학문을 즐거워하고 쉽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教諭라고 할 것이다.”⁷⁹⁾

또한 儒學의 教授法에서도 《禮記》에 “大學의 法에 惡習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

76) 任五淳 : 前掲書, pp.36~37

77) 《禮記》, 內則, “十有三年 學樂誦詩舞勺 成童舞象 學射御”

78) 柳點淑 : 前掲書, p.27

79) 權五惇 譯解 : 禮記, 서울, 홍신문화사, 1996, p.122

을 때 미리 금하는 것을 豫라 이르고, 감당할 만한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時라 이르며, 단계를 무시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孫이라 이르며, 서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본받는 것을 摩라고 하니, 이 네 가지는 教育을 흥하게 하는 원리이다.”⁸⁰⁾ 라고 하여 네 가지 教育원리를 적절히 구사하였다.

이는 오늘날의 教授法이나 發達理論에 비추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至當하고 용의주도한 것이어서 전통社會의 教育이 합리적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예라 하겠다.⁸¹⁾

(7) 童蒙教育의 原理

傳統社會의 童蒙教育의 방법적 원리를 분석해보면 模倣의 原理, 早期教育의 原理, 知行一致의 原理, 生活教育의 原理, 發達特性의 原理 등으로 파악된다.

① 模倣의 原理

아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형성단계에 있는 존재로서 가소성이 풍부하다. 이 때문에 주위환경의 좋고 나쁨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朝鮮時代의 童蒙教育에서는 부모의 모범적인 언행, 스승의 선택과 벗의 사귄, 그리고 교육적인 환경 조성 등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에게 여러 면으로 善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社會가 요구하는 教育목표에 도달하도록 했다.⁸²⁾ 《小學》에서는 《禮記》를 인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는데 그것을 보면, “曲禮에

말하기를 어린 자식들에게는 항상 보이되 속이지 않는 것으로 하며, 설 때에는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하며, 귀를 기우려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⁸³⁾라고 하여 어릴 때 보고 들어 익히지면 하나하나가 後天의인 人格을 이루게 되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童蒙이 보는 데서 부모가 용의를 정제하지 않거나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은 곧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⁸⁴⁾

모델제시적인 教育방법은 어린이의 습관 및 태도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中心的人物, 즉 兩親, 또래, 스승 등의 人的 環境이 바람직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동이 성장하게 되면 이 가운데서 社會적 強化에 큰 역할을 하는 친구의 선택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⁵⁾

② 早期教育의 原理

朝鮮時代에도 現代社會와 같이 早期教育이 重視되었지만 오늘날과는 달랐다. 우선 그 시작에서 오늘날은 幼兒期가 보통이지만 傳統社會에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해서 胎兒期 以前부터 실시했다고 하겠다. 즉 남편은 精을 충실하게 하고, 아내는 月經을 고르게 하는 身體的 준비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 오늘날은 知的인 면의 早期教育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傳統社會에서는 바람직한 습관형성 즉 德育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論語》에 의하면 “인간의 性情은 본래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習慣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⁸⁶⁾라 하여 早期教育의 근거로 後

80) 《禮記》, 學記, “大學之法 禁於未發之謂豫 當其可之謂時 不陵節而施之謂孫 相權而善之謂摩 此四者教之所由興也”

81) 柳點淑 : 前揭書, p.8

82) 上揭書, p.153

83) 《小學》, 立教, “曲禮曰 幼子常視毋狂 立必 正方 不傾聽”

84) 柳點淑 : 前揭書, p.155

85) 上揭書, p.156

天的인 習慣을 강조하였다. 《禮記》에서는 이와 같은 후천적인 나쁜 습관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교육을 興하게 하는 근본이라 여기고 있다. “大學의 法에 惡習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리 금하는 것을 豫라 이르고 -후략-”⁸⁷⁾라고 하여, 早期教育으로 아동에게 나쁜 습관이 형성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⁸⁸⁾

《擊蒙要訣》에서도 道德的 早期教育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다. “자식을 낳게 되면 조금이라도 알음이 있을 때부터 착하므로써 지도하여야 하니 만일 어려서 가르치지 못하다가 이미 장성해지면 큰 일에 습관되고 방심되어 가르치기가 심히 어렵다”⁸⁹⁾라고 하였다. 朝鮮時代의 童蒙教育은 幼小時의 可望性, 吸收性, 專利性(정신이 잡념이 없고 예리함)과 成長後의 散逸性(사고가 산만하고 안일함)을 인정하여 早期教育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道德的인 早期教育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외형적인 행동거지나 言行에 대해서도 早期教育의 필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즉 생활 습관면에서 早期教育을 강조하면서 道德的인 人格體 形成에 대한 教育과 병행해 나갔다.⁹⁰⁾

③ 知行一致의 原理

儒學의 教育은 知行一致를 요한다. 知行一致의 原理는 곧 知識과 實踐의 결합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바, 지식으로서 실천을 이끌어 나가고 실천으로서 지식을 시험한다는 뜻이기도 하다.⁹¹⁾ 朝鮮時代의

退溪는 聖學의 입장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길 것을 역설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孔子께서는 ‘배우고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두워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와 진다’ 하였으니 學이란 그 일을 습득하여 참되게 실천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⁹²⁾라고 했다. 朝鮮時代 童蒙教材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이 知를 行의 작용으로 삼으므로 해서 그 道德價値的 側面에서 行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실천의 내용을 儒敎의 기본덕목인 忠, 孝, 悌, 信 등의 도덕적 가치관에다 두고서, 道德的인 人格의 完成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목적으로 삼고 있다.⁹³⁾

④ 生活教育의 原理

‘敎’자가 의미하듯 朝鮮時代의 童蒙教育은 父兄이나 스승의 언행에 감화되고 모방하고 또 그들의 역할을 돕고 동일시키는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모든 의식이나 행동은 바로 禮를 의미하므로 조선시대의 동몽교육은 禮로 일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⁴⁾ 유교 봉건국가의 통치면에서 이러한 禮의 작용은 다분히 物理的인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나, 그 內面的인 本質에서 살펴보면 禮의 모든 성격이나 내용이 精神的인 요소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論語》에서 孔子는 顏淵이 仁에 대해 묻자 “자신의 慾望을 자제하고 禮로 돌아감이 仁이다”⁹⁵⁾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말은 곧 仁의 구체적인

86) 《論語》, 陽貨, “子曰 性相近也 習常遠也”
87) 《禮記》, 學記, “大學之法 禁於未發之謂豫 -後略-”
88) 柳點淑 : 前揭書, p.159
89) 李珥著 (張聖澤譯) : 前揭書, p.64
90) 柳點淑 : 前揭書, pp.163~164

91) 上揭書, p.165
92) 민족문화추진회 : 국역퇴계집 I, 서울, 경인문화사, 1977, p.133
93) 柳點淑 : 前揭書, p.169
94) 上揭書, p.170
95) 《論語》, 顏淵, “克己復禮爲仁”

표현이 禮라는 뜻으로서 仁과 禮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仁의 儒教的 道德性이 禮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하겠다.⁹⁶⁾

이러한 禮教育은 앞에서 지적한 禮의 도덕적 작용을 사상적 근거로 하여 禮의 外面的 表現이라 할 수 있는 生活禮節을 가르쳤으니 이것은 禮의 內面的인 道德性과 調和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⁹⁷⁾

⑤ 發達特性的 原理

傳統社會에서는 童蒙教育에서 發達特質의인 面이 고려되었다.

첫째 아동교육에서 成熟度가 고려되었다.《孟子》에 의하면 “군자는 가르치는 방법이 다섯가지가 있다. 제 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하며, 덕을 이룩하게 해주며, 재능을 발달시켜주며, 물음에 대답해주며, 혼자서 덕을 잘 닦아 나가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가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⁹⁸⁾라고 하였다. 그 첫번째로 “제 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것과 같이 한다”는 표현에서 被教育者의 성숙도에 따라 그것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을 실시하는 교육태도가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禮記》에 의하면 “깨우치려고 할 때, 즉 학생이 스스로 발분하여 알기를 구할 때에 즈음하여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데, 이를 時法이라 한다”⁹⁹⁾고 하여 성숙도와 학습시기를 고려하여 학습의 효과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

의하고 있다.¹⁰⁰⁾

둘째는 교육에서 個人差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孔子를 爲始한 儒家教育의 일반적인 교육의 방법이다. 《禮記》에 의하면 “군자는 사람의 賢愚, 또는 才能의 있고 없음에 따라 학문에 이르는데 있어 쉽고 어려움의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사람의 資質이나 習慣이 좋고 싫음에 따라 善으로 향할 때 遲速이 있음을 알아서 그런 연후에 능히 그 才質의 길고 열음이나 高下에 따라 널리 깨우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 재질의 深淺 高下에 따라 진실로 깨우치게 한다면 이로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후략-”¹⁰¹⁾와 같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하도록 하였다.¹⁰²⁾

셋째로 發達順序를 認定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서 漸進的으로 이행하였고 飛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幼年者는 강의를 들을 뿐이고, 선생에게 질문하지 않는데 그것은 자기의 실력을 경중 뛰어넘어 조금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¹⁰³⁾라고 하였다.¹⁰⁴⁾

넷째로 교육에서 自發性的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예를 들면 《士小節》에 “자질과 성품을 헤아려 능히 200자를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자만 가르쳐 주어 항상 정신과 역량에 여유를 가지게 함으로써 공부에 猨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권하였다”¹⁰⁵⁾라고 하여 흥미를 일으켜 학습효

96) 柳點淑 : 前揭書, pp.171~172

97) 上揭書, p.174

98) 《孟子》, 盡心章上, “君子之所以教者五 有 如時雨化之者 有成德者 有達材者 有答問者 有私淑艾者 此五者 君子之所以教也”

99) 權五惇 譯解 : 前揭書, p.367

100) 柳點淑 : 前揭書, p.182

101) 權五惇 譯解 : 前揭書, p.370

102) 柳點淑 : 前揭書, pp.182~183

103) 權五惇 譯解 : 前揭書, p.364

104) 柳點淑 : 前揭書, p.183

105) 李德懋 (金鍾權譯) : 前揭書, p.286

과를 얻도록 시도하였다.¹⁰⁶⁾

3. 韓醫學 文獻前의 養育 및 教育方法

明代의 小兒科 醫師인 萬全의 《育嬰家秘》에는 “乳母는 반드시 病이 없는 사람으로 해야하고 신체건강하고 和平한 사람으로 택해야 한다.”¹⁰⁷⁾고 하여 첫째로는 몸이 건강해야 하고 둘째로는 性情이 和平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育嬰家秘》에 “小兒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반드시 바른 말(正言)로 가르쳐라 -중략- 먹을 수 있게 되면, 공경함을 가르쳐라 -중략- 앉고 걸을 수 있게 되면 잘 붙잡고 지지해줘라 -중략- 친척 어른과 마을의 어른이 있으면 親疎, 尊卑, 長幼의 구분을 가르쳐라 -중략- 말하고 묻고 답하는 데에 성실함을 가르쳐라 -중략- 손님에 있어 인사하고 迎送하는 것을 가르쳐라 -중략- 이와같이 하면 비단 疾病이 없을 뿐 아니라 알고 터득하는 것도 이를 것이다.”¹⁰⁸⁾라고 하여 바른 禮節教育이 소아의 健康과 早期教育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保嬰撮要》에서는 “小兒가 막 태어나면 모름지기 乳母는 七情六淫에 미리 신중하도록 한다. -중략- 대개 保嬰의 방법은 嬰兒가 아직 病에 걸리지 않았으면 乳母를 조화롭게 다스리고, 嬰兒가 이미 病에 걸렸으면 嬰兒를 살피 치료하되 아울러 반드시 아이의 母도 같이 치료해야 한다”¹⁰⁹⁾고 하여 小兒의 疾病에 있어 아이를

보살피는 乳母와 母의 건강도 같이 살피야 한다고 하였다.

《古今醫統》에서는 “어린아이가 60일이 되면 눈동자가 발달하여 사람의 감정을 아니 이때부터 인식의 처음이 있게 되므로 마땅히 바른 성품을 가르쳐서 부모와 윗사람을 존대하고, -후략-”¹¹⁰⁾라고 하였는데 이는 아이들이 커감에 차분함과 禮儀를 가르쳐야 하며 早期教育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 《古今醫統》에서 “六者 精神未全 小兒勿見非常之物 或未識之人 -중략- 緣心氣成虛而精神離散故也”라 하여 소아들은 뇌의 발육이 완전치 못하여 精神科 疾患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낮은 사람이나 이상한 물건을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¹¹¹⁾

《景岳全書》의 小兒治法大法에서는 “小兒의 病은 원래 살피기가 쉽지 않으나 病原은 대부분 원인이 되는 바가 있는 까닭으로 증상에 임하는 자는 반드시 父母 先天의 氣를 살피야 하는데 母氣는 더욱 절실하며, 先天이 다 盛하여도 父母가 방탕하거나 또는 기르는데 마땅한 바를 잃으면 病이 百端으로 변해 생겨서 비록 강하여도 夭折하게 된다”¹¹²⁾고 하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父母의 先天氣運과 生活相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幼年이 七八歲 以前은 아직 聞見이 未及한 때인 바 이때는 아직 年歲가 未及하여서 好聞見 能

106) 柳點淑 : 前揭書, p.184

107) 陳夢雷 等編 : 醫部全錄 (第十冊, 兒科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p.14

108) 陳夢雷, 蔣廷錫 等 : 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29

109) 上揭書, p.32

110) 上揭書, p.33

111)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94, p.91

112) 張介賓 : 景岳全書(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4, p.701

敬愛之心을 살릴 수 없으므로喜怒哀樂이膠着하여서 病이 되기 쉬운 즉 이때에는 어머니가 보호해야 마땅하다”¹¹³⁾고 하여 父母兄弟의 도움이 幼年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中國의 精神科學에서는 王陽明의 《訓蒙大意》를 인용하여 “어린아이의 감정은 즐거워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마치 풀이 자라는 것과 같이 끈게 뻗어 나가는데 그것을 만진다면 그 풀은 쇠약해지는데 오늘 어린이에게 즐거우면서 배울 수 있게 하면 진보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아동교육에 묘책을 제시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잘되라고만 하여 아이의 學習을 강요하여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벌을 하니 이것은 아이의 學習性만을 죽이는 것이 될 뿐 오히려 學習을 피하게 되고, 그러니 강요하는 것은 해가 될 뿐 아니라 정확한 교육방법은 그의 特技를 살리는 것이고, 언제 그 長技를 개발하느냐에 달려있다”¹¹⁴⁾고 하여, 小兒의 精神의인 면을 教育的인 측면과 연결하여 記述하였다.¹¹⁵⁾

특히 “小兒相思는 古代의 일종의 幼兒心理疾患으로 영유아의 環境, 親人, 玩具의 박탈로 不食不乳, 表情淡漠, 昏睡不醒, 或導常哭啼, 睡臥不寧 등이 나타나고, 治療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만나면 治療가 된다”¹¹⁶⁾고 하여 幼兒의 心理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吳氏兒科學》에서는 “小兒 1세 이후

에는 점차 행동하고 언어를 배우므로 통상적으로 童蒙期라고 한다. 이때의 小兒는 지식이 점차 열리면서 좋은 習慣으로 이끌면 좋아지고, 나쁜 習慣으로 이끌면 나빠지는 것이 점차 날이 지나면서 習性으로 생기게 된다. 종종 끝내 그 習慣이 몸에서 고쳐지지 않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치 흰천에 검은 색이 염색되면 검어지고, 붉은 색이 염색되면 붉어지는 것과 같다. 바로 聖人과 凡人이 나누어지는 起點이고, 賢者와 不肖한 사람이 구분되는 바이다. -중략- 절대로 불량한 환경을 제공하지 말아서 일생동안의 榮光을 그르치지 않도록 한다.”¹¹⁷⁾고 하여 아이 때의 바른 習慣의 중요성과 좋은 教育環境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III. 考察

以上으로 傳統社會의 童蒙觀 및 養育, 教育方式과 韓醫學 文獻上의 養育 및 教育方式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1. 傳統社會의 童蒙觀

傳統社會의 童蒙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童蒙의 生得的 資質은 착하다’는 기본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동몽교육을 진행하였고, 童蒙을 理想的인 인물과 비유하여 가장 自然스런 상태로 보았다는 것이다. 人間의 本性은 善하다는 孟子의 性善說은 조선시대의 동몽관에 중대한 계시를 던져 주었고, 《小學》에서도 “仁, 義, 禮, 智는 人性의 근본도리이다. 무릇 이 仁義禮智의 근본도리가 그 처음에는 착하지 않는 바가 없

113)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 서울, 誠理會出版社, 年度未詳, p.47

114) 李浚川 : 情志醫學, 中國, 中醫古籍出版社, 1992, p.282

115) 具炳壽 : 前揭書, p.165

116) 王米渠 : 中醫心理治療, 重慶, 重慶出版社, 1986, p.155

117) 吳克潛 : 吳氏兒科學, 中國, 新文豐出版, 中華民國 66年, p.38

다”¹¹⁸⁾ 고 하여 타고난 本性은 善하다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또 孟子는 離妻章句 下에서 “大人이란 그의 어린이 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다.”¹¹⁹⁾라고 했고, 佛敎에서는 “善男子야 무엇을 嬰兒의 행동이라고 하느냐 하면 善男子야 능히 일어나고 거주하고, 오고, 가고, 말하는 것을 嬰兒라고 한다. 如來도 이와 같으리라.”¹²⁰⁾라고 하였으며, 老子는 《道德經》에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德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비유할 수 있다.”¹²¹⁾라고 하여 어린아이의 행동을 理想的으로 생각했다.

둘째로 傳統社會에서는 幼兒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長育의 當爲性을 주장하였다. 즉, 《書經》에서 “어린아이가 기어서 우물에 들어가려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죄가 아니다.”¹²²⁾라고 하여 成人이 幼兒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였다.

셋째로 童蒙의 可能性을 인정한 점이다. 普照禪師의 《修心訣》에서는 “漸修라고 하는 것은 비록 本性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나 오랫동안의 習氣는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깨달음에 의해서 담되 차츰 익혀서 그 功이 이루어져 聖胎를 길러 오랫동안 안을 지나 聖人이 되기 때문에 漸修라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몸의 모든 부분이 남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힘이 아직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지낸 뒤에라야 成人이 되는 것과 같다.”¹²³⁾라고 하여, 佛敎에서 생각하는 幼兒는 佛性을 지니고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無의 상태에서 有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業을 수반하고 태어남으로서 자신의 독특한 성장능력을 가지고 主體的으로 살아가는 能動的인 존재로 보았다.¹²⁴⁾

2.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敎育方式

1) 傳統社會의 養育方式

胎敎로부터 시작하여 처음 2~3년간의 자녀 養育과 訓育에 관련된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育兒法은 최근에 많이 밝혀진 영아와 유아발달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환경적인 요소, 부모의 역할에 너무나도 잘 맞는 것이라고 하겠다.¹²⁵⁾

(1) 傳統社會의 授乳方式

傳統社會에서 한국인의 授乳方式은 원할 때는 언제나 母親의 가슴을 향유하며, 동생이 생길 때까지 늦도록 젖을 먹을 수 있었다. 젖이 맛있지 않아도 빨아먹었고 동생에게 물려주면 그렇게 느껴진다는 심리를 고려하여 離乳 후에도 祖母의 빈 젖가슴으로 대신해 주었고, 마스한 등에 업고 체온을 나눌 수 있도록 길렀다. 특히 업는 방법이 胎中에 있을 때의 자세와 흡사하여 가슴 가득 모친이나 조모의 등을 안게 함으로서 아기에겐 안정감과 만족스런 경험을 줄 수 있었다.¹²⁶⁾ 또 生後

118) 《小學》：題辭，“仁義禮智 凡此厥物 無有不善.”

119) 《孟子》：離妻章句，“大人者 不失其赤子之心也”

120) 《大般涅槃經》：兒行品，“善男子之何 名嬰兒行 善男子 不能起住來去語言 是名嬰兒如來亦爾”

121) 老子,《道德經》：“含德之厚 比於赤子.”

122) 《書經》：“赤子匍匐將入井 非赤子之罪也”

123) 普照禪師,《修心訣》：“漸修者 頓悟本性與佛無殊 無如習氣 難卒頓除故 依悟而修 漸熏力成 長養聖胎 久久成聖故, 云漸修. 比如 初生之日 諸根見足與他無異然其力未克 頗經歲月 方始成人.”

124) 張敬道：前揭書, pp.29~30

125) 홍강의：前揭書, p.52

2~3년간 계속 授乳를 지속하였는데, 오히려 지나치게 늦은 離乳가 구강의 지나친 만족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지나친 구강의 만족은 낙천적 사상을 자아내고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¹²⁷⁾ 授乳방법이 모친의 애정을 직접 유아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유아의 성장발달에 바람직한 교육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성격형성에도 좋은 작용을 하였다. 예컨대, 모친의 가슴에 안겨 授乳받는 동안 모친의 왼편 가슴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胎中에서의 환경과 흡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보다 만족스럽고 안정된 상태에서 감각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고, 행복감에 젖어들면서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손길에서 오는 체온과 포만된 애정의 경험이 나중에 세계와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한다.¹²⁸⁾ 최근에 와서 이러한 영유아기에 있어서의 授乳의 방법도 많이 달라져서 신체적인 접촉이나 授乳方式이 우유나 병을 통한 기계적이고 情이 부족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¹²⁹⁾ 전통사회의 授乳方式은 이보단 더욱 人間中心의이라 하겠다.

(2) 傳統社會의 排便訓練

傳統社會의 排便 訓練은 授乳態度가 너그러웠던 것처럼 엄격하지는 않았고, 훈련이 저절로 쉽게 祖母에 의하여 무섭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¹³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용변을 보도록 유의해 주었고 잠자는 도중에도 깨워서 용변을

보게 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는 조모와 함께 기거하였으므로 배변훈련도 저절로 조모의 소관이 되었기 때문에 育兒經驗이 많은 조모로서는 젊은 모친보다 관용스런 훈련태도를 취했다고 한다.¹³¹⁾ 따라서 성격적으로 강박적이거나 긴장되지 않고 시간과 약속지키기에 과민하지 않은 너그럽고 적당주의적인 그러나 스트레스를 스스로 일으키지 않는 성격적 구조로 성장하였던 것 같다.¹³²⁾ 그리고 유아는 離乳나 大小便가리기 등으로 본격적으로 자율적 존재가 되어 가면서 자율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¹³³⁾ 최근에는 영유아기의 배변훈련을 엄하고 심하게 함으로서 부모와의 힘겨움도 자주 생기며 이로 인하여 배변훈련을 통한 문제성이 증가하면서 성격적으로도 肛門期的인 성격의 문제 즉, 폭력과 자제력과 강박성향의 문제가 증가되고 있는데¹³⁴⁾ 이에 비해 전통사회의 배변훈련은 유아의 精神健康을 더욱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夜尿症이라고 문제시할 때는 적어도 大小便가리기 훈련을 완성할 나이가 지난 아동일 때, 즉 5세 이상의 아동일 때라야 오줌싸개라고 문제시켰다.¹³⁵⁾ 이 시기의 아동이 밤에 용변을 못 가렸을 경우에는 오줌 찐 아동에게 이른 아침 키를 썩워 이웃집에 소금을 꾸러 보내고 이웃집에서는 이 아동을 쫓아내는 風俗이 있었는데 이런 연극은 아동의 수치심을 자극함으로써 용변가리기에 스스로 신경을 쓰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꾸며진 것이다.¹³⁶⁾ 즉,

126) 柳岸津 著 : 前掲書, 1982, pp.85~86

127) 上掲書, p.86

128) 上掲書, p.84

129) 홍강의 : 前掲書, p.53

130) 上掲書, p.53

131) 柳岸津 著 : 前掲書, 1982, p.92

132) 홍강의 : 前掲書, p.53

133) 柳岸津 著 : 前掲書, 1982, p.93

134) 홍강의 : 前掲書, p.53

135) 柳岸津 著 : 前掲書, 1985, p.70

傳統社會에서는 7세부터는 性別에 따라 남녀의 性役割教育을 본격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夜尿症같은 退行에, 成人들은 철회했던 애정을 충분히 표시하여 치료도 하지만, 혹시 愛情의 표시가 아동을 유아기에 집착시키는 또다른 퇴행의 원인이 될까 염려했다. 또한 애정 표시의 효과가 다른 단계의 性역할교육에 방해가 될까 염려했다. 왜냐하면 性역할교육의 내용은 아동을 어른으로 대우하여 성인 남녀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충격요법을 취하여 아동이 거의 불가능한 유아기의 행복감에 젖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통을 참는 인내와 견고성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¹³⁷⁾

전통사회의 배변훈련은 너그러우면서도 유아를 자율적 존재로 인정해 주었고, 소아아뇨증의 경우에는 소아의 퇴행과 性역할교육의 저해를 예방하고 소아에게 욕구 불만에 대한 인내력을 배양하기 위해 아동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충격요법을 이용하였다.

(3) 傳統社會의 大家族制度

韓國 傳統社會의 가족은 소위 擴大家族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大家族家庭社會에서 아동이 社會化되어 가는 특성은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成人이 부모이외에도 더 있어서, 그들이 육아에 영향을 줌으로써 의존적인 성격을 발전시키고, 아동은 세상을 절대적인 黑白으로 보지 않고 現實的으로 보기 때문에 情緒的으로 안정되도록 자라게 된다. 아동은 成人들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아동자신만의 독립된 생

활 공간을 갖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成人의 세계로 들게 하는 특징도 보인다. 이러한 早期經驗은 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시키는 환경으로서 大家族社會의 장점이 될 수 있다.¹³⁸⁾ 學齡前期의 경험도 다세대의 대가족제도 하에서 4~6세의 아동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남녀의 상호교환도 단순히 엄마, 아빠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기타 다양한 女性象과 男性象을 접함으로써 강렬한 오이디푸스 복합체의 경험이 분산되고 비교적 쉽사리 그 위기를 지나가는 경향이 있다.¹³⁹⁾

또 한 文化의 전승과 발전에는 兩性三世代, 즉 祖父, 父, 母, 子息이 있어서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 代의 활동을 하면서 서로 밀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경험이 필요하며, 그 중 一人의 不在는 이러한 관계의 균형파탄, 왜곡, 단절을 초래하여 文化의 전승과 발전에 차질과 파탄을 가져온다. 그러나, 조부모와 심리적 유대 속에서 자라난 아동은 그만큼 의지할 수 있는 관계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며, 인간사의 복잡한 관계를 조정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어린 나름대로 어렵듯하게나마 人生의 畧운곽을 조감할 수 있는 눈을 키워가게 된다. 大家族社會에는 兒童은 주로 成人에게 배우는 後察的 文化와 주로 同年輩 兒童들에게서 배우는 共察的 文化, 주로 成人이 兒童으로부터 배우는 先察的 文化라는 Mead의 표현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¹⁴⁰⁾

(4) 양밥

傳統社會는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

136) 柳岸津 著 : 前掲書, 1982, p.104

137) 柳岸津 著 : 前掲書, 1985, pp.70~71

138) 柳岸津 著 : 前掲書, 1982, p.108

139) 上掲書, pp.108~110

140) 上掲書, pp.108~110

에서 나타날 수 있는 不適應上의 行動(버릇)을 矯正하는 데에 심리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했는데, 이러한 民間處方을 穰法이라고 漢字로 쓰이며, 양밥이라고 속칭되어 왔다.¹⁴¹⁾ 전통사회에서 창안하여 발전시키고 사용했던 아동을 위한 양밥 즉 민간처방은 厄을 타인이나 타사물과 대상에게 轉移시킴으로써 그 災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方術이었다. 따라서 이 양밥은 傳統社會人들의 民間信仰에 기초하여 전통사회다운 상징체계에 의존한 심리요법으로서 각종 재난을 물리치는 방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에 다양하게 대처하는 兒童心理療法으로서 豫防醫學의 성격도 띠고 있다. 邪鬼가 모든 질병을 조종한다는 전통사회다운 발상에서 창출된 대부분의 예방의학적 방법은 귀신을 속이거나 겁주거나 유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돌림병이라는 전염병까지도 病魔 즉 귀신의 짓으로 인정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귀신을 속이거나 어르고 달래는 방법을 사용했다.¹⁴²⁾

전통사회에서는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兒童心理學이 발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한 양밥민속은 兒童心理療法으로써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법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던 育兒實際의 주요 부분이었다.¹⁴³⁾

2) 傳統社會의 教育

(1) 傳統社會의 教育觀

朝鮮時代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은 儒敎의 土臺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러한 文化的 風土에서 아동교육은 儒敎의

범주와 儒敎의 색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통교육은 儒敎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할 수 있다.¹⁴⁴⁾

朝鮮時代 儒學의 학문적 경향이었던 性理學은 宇宙의 根源과 人間의 心性問題를 形而上學의으로 해명하려는 哲學的인 儒學이다. 성리학의 교육의 목적은 倫理道德에 중점을 두어 善人을 양성하는데 있고 최종 목적은 聖賢의 자리에 도달하는데 있었다. 교육의 목적에서 교육의 방법이 생기는 것이므로 성리학과의 교육방법은 다 聖賢의 하던 일을 본뜨는데 있었다.¹⁴⁵⁾ 儒學에서 “배움은 날로 쓰고 행함에 있으니 만일 평상생활에 처해 삶에 공손하며, 하는 일에 공경하고 남과 사귄데 충실하면 이것을 학문한다고 하는 것이니 -후략-”¹⁴⁶⁾라고 한 바와 같이 儒敎의 학문은 대부분이 일상에 대한 바른 삶의 교육이었다.¹⁴⁷⁾ 儒敎社會는 人倫思想인 만큼 초기교육은 학문과 생활윤리가 별개로 취급되지 않았다. 더욱이 유교사회에서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聖人, 君子象이 지극히 윤리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유교의 교육이나 학문은 주로 윤리적인 면에 치중하였고, 이러한 교육의 효과를 이룩하는 데는 어린시기 즉 知覺이 열리기 전에 기틀을 잡아 주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¹⁴⁸⁾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인 栗谷은 인간됨의 학문을 중요시하면서 평소생활에 공손하며 하는 일에 공경하며 남과의 사귄데 있어서도 충실한 생활윤리에 중점을

141) 柳岸津 著 : 前掲書, 1985, p.25

142) 上掲書, pp.23~24

143) 上掲書, pp.26~27

144) 柳點淑 : 前掲書, p.7

145) 郭成基 : 前掲書, p.13~14

146) 李珥著 (張聖澤譯) : 前掲書, p.36

147) 柳點淑 : 前掲書, p.8

148) 張敬道 : 前掲書, pp.18~19

두어 바람직한 생활 그 자체를 학문으로 간주했다.¹⁴⁹⁾ 栗谷은 사람에 따라서 氣質에 차이가 있으므로 知的, 行的 能力이 다르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읽어야 할 책의 종류 및 내용과 순서도 사람의 知的, 行的 능력수준에 맞게 정하였다. 栗谷은 教科中心, 理論中心의 교육을 배제하고 일상생활 속에 교육이 있다고 주장하여 그의 교육과정은 생활 그 자체로서 經驗主義的, 自然主義的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¹⁵⁰⁾

(2) 胎教

胎教란 胎兒에게 教育적 胎內 環境을 造成해 주기 위하여, 母親이 行하는 教育적 努力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¹⁵¹⁾

人間教育에 대한 한국 전통사회의 태도는 대단히 엄격했다. 그래서 인간의 교육은 마땅히 태어나기 이전 즉 孕胎 以前 兩親의 자격을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에 잉태하기 위해서는 먼저 兩親이 될 母體와 父體의 心身이 정상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¹⁵²⁾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신생아는 이미 母親을 통하여 胎中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고 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교육에 대해 한국 전통사회가 가졌던 관점은 첫째, 生命의 尊嚴性 및 胎兒에게 人格을 부여하였고, 둘째, 人間의 教育이란 生命의 孕胎 以前과 孕胎 中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교육에 대한 이렇듯 준엄한 태도에서, 孕胎 전에 母體와 父體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兩親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

고, 孕胎한 다음에는 胎中아기가 知的으로나, 情緒的, 身體的으로 건전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胎教가 강조되었다.¹⁵³⁾

師朱堂 李氏는 《胎教新記》 제1장에서 “인생에 있어서 성품은 先天的인 것이나 기질은 後天的인 것이니, 이 기질을 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온전히 父母의 말은 바 소임이니, 부모된 자로서 이 사명을 안다면 자녀들의 교육을 어찌 소홀히 하리요, 아버지 낳으시고 어머니 길러 주심 스승의 가르치심이 모다 한가지라, 醫術의 뛰어남은 豫防에 있듯이, 가르치기를 잘 한다는 것은 스승에게 10년을 배우기보다 胎中教育 10개월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여 자식의 기질이 부모에 있기 때문에 胎教가 중요함을 논하였다. 胎教의 중요성은 아내된 책임으로서 훌륭한 자식을 기르는데 두었다. 즉, 母親의 胎教 여하가 胎中 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고에서, 보다 엄격한 胎教實踐과 까다로운 胎教內容이 요구되었다.¹⁵⁴⁾

(3) 生活教育

儒家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할 때 그 기준을 생물학적인 면에 두지 않고 禮의 有無로 정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禮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으로 容儀를 들고 있다.¹⁵⁵⁾

傳統社會의 童蒙教育에서는 소위 九容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몸가짐으로 강조하였다. 전통사회에서는 九容에 어긋나는 모습을 피하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九容에 어긋난 몸가짐을 하면 마음이 안

149) 柳點淑 : 前揭書, pp.102~103

150) 任五淳 : 前揭書, p.35

151) 柳岸津 著 : 前揭書, 1982, pp.23~24

152) 上揭書, 1982, pp.24~26

153) 上揭書, 1982, p.22

154) 上揭書, 1982, pp.35~36

155) 柳點淑 : 前揭書, p.41

정되지 못하고, 게을리지게 되어서 修養을 하지 못하게 되고, 또 修養을 하지 못하게 되면, 行動도 역시 경솔하고, 천박해지게 되므로, 容儀를 바르게 유지함으로써 마음을 안정시키고, 공경스럽게 할 수 있고 따라서 行動도 역시 침착하고,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이유로 傳統社會의 教材에서는 오늘날처럼 ‘心身’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身心’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몸가짐이 마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생각한다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現代의 心理學에 의해서도 九容은 불안시의 행동특성과 대조되는 안정시의 행동특성군으로, 또 건강한 심리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역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몸가짐으로 인식된다.¹⁵⁶⁾

조선시대에는 작업도 儒敎的 德性을 기르기 위한 修養의 한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일정한 法度가 있었고, 동시에 童蒙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하여 권장하기도 했다. 童蒙教育에서의 작업은 단순히 일 자체를 바르고 반듯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업을 통하여 心身을 단련하고 공경하는 태도도 기르며 나아가 德을 쌓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⁵⁷⁾

栗谷의 自警文에는 “만가지 惡이 모두 다 혼자 있을 때에 삼가지 않는 거기서 생겨나느니라.”¹⁵⁸⁾라고 하였고, 《筆語》에서도 謹獨章을 두어 홀로 있을 때 조심할 것을 깨우치고 있다. 비단 여러 사람

앞에서 행동할 때만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역시 행동거지에 있어서 조심하는 것은 현대의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볼 때 自己原理의 道德性에 비유될 수 있는 것으로 전통사회에서는 개인의 신조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성숙된 인격상을 교육하였다.¹⁵⁹⁾

(4) 讀書法

栗谷은 聖賢의 度를 배우는 데는 무엇보다 먼저 讀書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¹⁶⁰⁾ 독서의 필요성을 개인의 인격수양을 위한 방향설정의 의미로 보았다.

朱子는 ‘順序漸進’이라는 讀書法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順序’의 방법이 곧 教材의 客觀的인 順序와 學生의 主觀的인 能力에 따라 독서교재를 정해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¹⁶¹⁾ 栗谷도 初學者들을 위하여 읽어야 할 책의 종류와 읽는 순서에 대하여 그의 저술인 《聖學輯要》, 《擊蒙要訣》, 《學校模範》 등에 讀書章을 두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자의 기질에 따른 지적 발달수준에 맞도록 글을 읽게 함으로써 개성이 맞게끔 교육을 하려고 한 것이다.¹⁶²⁾ 당시의 童蒙教材에 나타난 讀書順序를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아동교육에 있어서 일종의 학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¹⁶³⁾

(5) 藝術敎育

儒家에서도 童蒙期에는 노래와 춤을 중요시하여 “열 세 살이 되거든 음악을 배우고 詩歌를 외우며 勺으로 춤을 추게 하고 열다섯살 이상이 되거든 象으로 춤추며

156) 上揭書, pp.45~46

157) 上揭書, pp.58~59

158) 李珣著(張聖澤譯) : 前揭書, p.122

159) 柳點淑 : 前揭書, pp.63~64

160) 任五淳 : 前揭書, pp.36~37

161) 柳點淑 : 前揭書, p.112

162) 任五淳 : 前揭書, pp.36~37

163) 柳點淑 : 前揭書, p.112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게 할 것이다.”¹⁶⁴⁾라고 하였다. 儒家의 입장에서는 禮가 외모를 닦는 것과 같이 노래와 춤이 마음을 닦아 性情을 부드럽게 하고, 情操와 道德心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통사회의 음악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춤은 형태의 텔리카시와 動中靜의 美를 추구하며, 詩는 觀照의인 思考를 표현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靜的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교육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¹⁶⁵⁾

(6) 教授法

傳統社會의 스승의 역할은 童蒙 자신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학습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동몽 자신의 자연적인 발달 법칙에 따라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으로, 현대의 Maslow나 Montessori의 人本主義的 역할과 유사하다.¹⁶⁶⁾ 또, 儒學의 教授法에 惡習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금지하는 豫法, 막 깨우치려고 할 때 가르치는 時法, 智力의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르치는 孫法, 또래들의 언행을 보고 그 좋은 점을 본받게 하는 摩法이 있어 이를 적절히 구사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教授法이나 發達理論에 비추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至當하고 용의 주도한 것이어서 전통사회의 교육이 합리적이었음을 나타내 준다.¹⁶⁷⁾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心理指導, 生活指導, 情緒指導, 專攻指導 등 학생의 全人的 指導를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 자질을 갖

춘 교사가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하는데¹⁶⁸⁾ 전통사회의 教授法은 현대사회에 부족한 全人教育에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

(7) 童蒙教育의 原理

傳統社會의 童蒙教育의 방법적 원리를 분석해보면 模倣의 原理, 早期教育의 原理, 知行一致의 原理, 生活教育의 原理, 發達特性의 原理 등으로 파악된다.

① 模倣의 原理

아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정되지 않고 형성단계에 있는 존재로서 가소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위환경의 좋고 나쁨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至大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朝鮮時代의 童蒙教育에서는 부모의 모범적인 언행, 스승의 선택과 벗의 사귄, 그리고 교육적인 환경 조성 등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에게 여러 면으로 善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목표에 도달하도록 했다.¹⁶⁹⁾

② 早期教育의 原理

傳統社會의 교육은 그 시작에서 우선 胎兒期 以前부터 실시하여, 남편은 精을 충실하게 하고, 아내는 月經을 고르게 하는 신체적 준비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또 早期教育에 대해서도 전통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습관형성 즉 德育이 중심이 되었는데,¹⁷⁰⁾ 이것은 현대의 早期教育이 知識教育이나 機能教育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¹⁷¹⁾

164) 《禮記》, 內則, “十有三年 學樂誦詩舞勺 成童舞象 學射御”

165) 柳點淑 : 前揭書, p.27

166) 上揭書, p.122

167) 上揭書, p.8

168) 진교훈 : 철학교육으로서의 인간교육, 철학·인간 그리고 교육, 한국철학회 대외보, 세종문사, 1994, p.90

169) 柳點淑 : 前揭書, p.153

170) 上揭書, p.159

③ 知行一致의 原理

儒學의 教育은 知行一致를 요한다. 知行一致의 원리는 곧 知識으로서 實踐을 이끌어 나가고 實踐으로서 知識을 시험한다는 뜻이다.¹⁷²⁾ 조선시대 동몽교재에서 살펴보면 그 道德價值的 측면에서 知보다 行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實踐의 내용을 儒敎의 기본덕목인 忠, 孝, 悌, 信 등의 道德的 價値觀에다 두고서, 道德的인 人格의 완성을 가장 기본적인 教育목적으로 삼고 있다.¹⁷³⁾

④ 生活教育의 原理

‘敎’자가 의미하듯 朝鮮時代의 童蒙教育은 父兄이나 스승의 언행에 감화되고 모방하고 또 그들의 역할을 돕고 동일시하는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모든 의식이나 행동은 바로 禮를 의미하므로 朝鮮時代의 童蒙教育은 禮로 일관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⁷⁴⁾ 이러한 禮의 작용은 그 내면적인 본질에서 살펴보면 禮의 모든 성격이나 내용이 정신적인 요소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禮教育은 禮의 도덕적 작용을 사상적 근거로 하여 禮의 外面的 表現이라 할 수 있는 生活禮節을 가르친 것으로, 禮의 內面的인 道德性과 조화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¹⁷⁵⁾

⑤ 發達特性의 原理

傳統社會에서는 童蒙教育에서 發達特質의 인 면이 고려되었다.

첫째 아동교육에서 成熟度가 고려되었다. 따라서 被教育者의 成熟度에 따라 그

것에 가장 적합한 教育방법을 실시하였고, 성숙도와 학습시기를 고려하여 학습의 효과를 도모하려고 노력하였다.¹⁷⁶⁾

둘째는 教育에서 個人差를 인정하여서 능력과 자질에 따라 教育하도록 하였다.¹⁷⁷⁾

셋째로 發達 順序를 인정하여서, 모든 것을 순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행하였고 비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다.

넷째로 教育에서 自發性的 原理를 이용하여서, 흥미를 일으켜 학습효과를 얻도록 시도하였다.¹⁷⁸⁾

이상에서 살펴본 童蒙教育의 방법적 원리들을 教育의 目標論 측면에서 살펴보면 모두가 道德的인 人格體의 完成으로 귀결되어 지고 있다. 이것은 儒敎에서 주장하는 善을 지향하는 聖人形 人間의 完成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교육에서부터 이러한 教育이 중시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¹⁷⁹⁾

3. 韓醫學 文獻上의 養育 및 教育方法

萬全의 《育嬰家秘》에는 “乳母는 반드시 병이 없는 사람으로 해야하고 身體健康하고 和平한 사람으로 택해야 한다.”¹⁸⁰⁾ 하였고, 《保嬰撮要》에서는 “小兒가 막 태어나면 모름지기 乳母는 七情六淫에 미리 신중하도록 한다 -후략-”¹⁸¹⁾라고 하여 幼兒를 기르는 乳母와 母의 정신 및 신체건강을 중요시 하였다.

171) 上揭書, pp.163~164

172) 上揭書, p.166

173) 上揭書, p.169

174) 上揭書, p.170

175) 上揭書, p.174

176) 上揭書, p.182

177) 上揭書, pp.182~183

178) 上揭書, p.184

179) 上揭書, p.185

180) 陳夢雷 等編：前揭書, p.14

181) 陳夢雷, 蔣廷錫 等：前揭書, p.32

《景岳全書》의 小兒治法大法에서는 “小兒의 病은 -중략- 반드시 父母 先天의 氣를 살피야 하는데 母氣는 더욱 절실하며, 先天이 다 盛하여도 부모가 방탕하거나 또는 기르는데 마땅한 바를 잃으면 病이 百端으로 변해 생겨서 비록 강하여도 요절하게 된다”¹⁸²⁾고 하였고,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幼年이 七八歲 以前은 아직 聞見이 未及한 때인바 -중략- 喜怒哀樂이 膠着하여서 病이 되기 쉬운 즉 이때에는 어머니가 보호해야 마땅하다”¹⁸³⁾고 하여 부모의 生活相 및 도움이 유년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育嬰家秘》에 “小兒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반드시 바른 말(正言)로 가르쳐라 -중략- 먹을 수 있게 되면, 공경함을 가르쳐라 -후략-”¹⁸⁴⁾라고 하였고, 《古今醫統》에서는 “어린아이가 60일이 되면 눈동자가 발달하여 사람의 감정을 아니 -중략- 마땅히 바른 성품을 가르쳐서 부모와 윗사람을 존대하고, -후략-”¹⁸⁵⁾라고 하여 바른 禮節教育이 소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또 《古今醫統》에 “六者 精神未全 小兒勿見非常之物 或未識之人 -중략- 緣心氣成虛而精神離散故也”라 하여 소아들은 뇌의 발육이 완전치 못하여 精神科 疾患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낮은 사람이나 이상한 물건을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¹⁸⁶⁾

中國의 精神科學에서는 王陽明의 《訓蒙大意》를 인용하여 “어린아이의 감정은

즐거워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중략- 오늘 어린이에게 즐거우면서 배울 수 있게 하면 진보만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잘되라고만 하여 아이의 學習을 강요하여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벌을 하니 이것은 아이의 學習性만을 죽이는 것이 될 뿐 오히려 學習을 피하게 되고 -후략-”¹⁸⁷⁾라고 하여, 소아의 精神의인 면을 教育的인 측면과 연결하여 기술하였다.

“小兒相思는 古代의 일종의 幼兒心理疾患으로 영유아의 環境, 親人, 玩具의 박탈로 不食不乳, 表情淡漠, 昏睡不醒, 或導常 哭啼, 睡臥不寧 등이 나타나고, 치료는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물건을 만나면 치료가 된다”¹⁸⁸⁾고 하여 유아의 心理의 重要性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吳氏兒科學》에서는 “小兒는 지식이 점차 열리면서 좋은 習慣으로 이끌면 좋아지고, 나쁜 習慣으로 이끌면 나빠지는 것이 점차 날이 지나면서 習性으로 생기게 된다.”¹⁸⁹⁾고 하여 아이 때의 바른 習慣의 중요성과 좋은 教育環境의 필요성에 대하여 力說하였다.

IV. 結論

1. 傳統社會의 童蒙觀은 첫째로 童蒙을 善하고 理想的이며 自然스러운 상태로 보았고, 둘째로 保護의 對象으로 보아 長育의 必要性을 인식하였으며, 셋째로 童蒙의 可能性을 인정하여 主體性과 能動性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2. 傳統社會의 授乳方式은 幼兒에게 安定

182) 張介賓 : 前揭書, p.701

183) 韓東錫 : 前揭書, p.47

184) 陣夢雷, 蔣廷錫 等 : 前揭書, p.29

185) 上揭書, p.33

186) 丁奎萬 : 前揭書, p.91

187) 李浚川 : 前揭書, p.282

188) 王米渠 : 前揭書, p.155

189) 吳克潛 : 前揭書, p.38

- 感과 滿足感을 주어 樂天의인 성격과 自信感을 심어주었고, 傳統社會의 排便 熏련은 너그럽고 強迫의이지 않아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自律的 存在로 성장하도록 하였다.
3. 傳統社會의 大家族制度에서는 아동이 세상을 절대적인 黑白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 情緒的으로 安定되고, 강렬한 오이디푸스 복합체의 경험에 분산되며, 人間사의 允倫을 照鑑할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다.
 4. 傳統社會의 양육은 아동의 성장 발달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不適應上의 行爲를 矯正하는 民間處方으로 現代의 兒童心理療法과 동일한 입장에서 올바른 兒童養育과 教育의 方法을 바로잡아 주는 豫防醫學的 性격을 띠고 있다.
 5. 傳統社會의 教育의 目標은 倫理 道德에 重點을 두어 善人을 양성하는데 있고 教育의 課程은 生活倫理에 重點을 주어 생활 그 자체로서 經驗主義的, 自然主義的 性격을 가지고 있다.
 6. 傳統社會는 人間教育에 罔及하여 孕胎前에는 母體와 父體가 身體的으로나 心理的으로 兩親이 될 수 있는 資格을 갖추어야 하고, 孕胎한 다음에는 胎兒가 知的으로나, 情緒的, 身體的으로 健全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胎敎를 강조되었다.
 7. 傳統社會에서는 容儀(몸가짐)와 作業, 혼자 있을 때의 行爲舉止에 注意하여 儒敎的 德性을 기를 뿐만 아니라 心理的으로 安定되고 個人의 信條와 良心에 따라 行爲하는 成熟한 人格象을 敎育하였다.
 8. 傳統社會의 敎授法은 유아의 潛在力과 學習에 대한 意欲을 고취시키고, 유아
- 가 自然的인 發達法則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원리를 적절히 구사하였다.
9. 傳統社會의 童蒙敎育의 方法적 원리를 분석해보면 模倣의 原理, 早期敎育의 原理, 知行一致의 原理, 生活敎育의 原理, 發達特性의 原理 등으로 파악된다.
 10. 韓醫學의 文獻에 나타난 바로는 父母의 生活相과 바른 禮節敎育 및 習慣, 敎育環境이 小兒의 精神健康에 근본적인 바탕을 이룬다.
- 傳統社會의 養育 및 教育方式은 現代의 方式들에 비해서 훨씬 自然스럽고 人間中心的이며 고른 人格發達을 유도한다. 다만 과거 우리나라의 現代史에서 進行된 급속한 傳統文化와의 斷絶로 이들 方法들이 많이 散失되어 그 구체적 內容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들 方法들이 小兒의 精神健康 및 發達에 미치는 影響에 대해서도 研究結果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들 分野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研究가 요구되고 아울러 韓醫學的 人間觀에 입각한 小兒의 育兒 및 敎育方法에 대한 研究도 進行되어야 한다고 思慮된다.

V. 參考文獻

1. 홍강의 : 위기에 처한 부모역할과 아동양육, 한국정신치료학회지, 제 9권 제 1호, 1995
2. 具炳壽 : 小兒 精神에 대한 小考, 大韓 韓方小兒科學會誌, 제 9권 제 1호, 1995
3. 柳點淑 : 朝鮮後期 童蒙敎材의 內容分析, 경희대학교 대학원위원회, 대학원 가정학과 가정관리전공, 1991
4. 張敬道 : 東洋의 幼兒觀에 對한 比較考察, 원광대학교 敎育대학원, 유아敎

- 育전공, 1989
5. 郭成基 : 朝鮮朝 “小學”의 教育的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教育學科, 1988
 6. 任五淳 : 栗谷의 教育思想 研究, 원광대학교, 教育대학원, 1999
 7. 진교훈 : 철학教育으로서의 인간教育, 철학·인간 그리고 教育, 한국철학회 대회보, 세종문사, 1994
 8. 權五惇 譯解 : 禮記, 서울, 흥신문화사, 1996
 9. 金星元譯 : 小學, 서울,明文堂, 1986
 10. 李德懋 (金鍾權譯) : 士小節, 서울,明文堂, 1985
 11. 민족문화추진회 : 퇴계집 I, 서울, 경인문화사, 1977
 12. 李珥著(張聖澤譯) : 擊蒙要訣, 강릉, 문왕출판사, 1966
 13. 한국어대사전 편찬위편 : 한국어 대사전, 현문사, 1976
 14. 柳岸津 : 예술의 소우주(어린이를 알자), 서울, 培英社, 1979
 15. 柳岸津 著 : 韓國 傳統社會의 幼兒 教育, 서울, 正民社, 1982
 16. 柳岸津 著 : 韓國傳統兒童心理療法, 서울, 一志社, 1985
 17. 鄭範謨 : 國家發展과 어린이, 서울, 培英社, 1976
 18. 지금송 : 태교와 그 의의, 家庭教育 42, 1962
 19. 陣夢雷 等編 : 醫部全錄 (第十冊, 兒科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63
 20. 陣夢雷, 蔣廷錫 等 : 醫部全錄, 서울, 大星文化社, 1992
 21. 許浚著 (許珉譯) : 東醫寶鑑(下卷) 雜病篇 卷10,11, 東洋綜合通信大學 教育部, 1974
 22. 張介賓 : 景岳全書(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54
 23.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 서울, 誠理會出版社, 年度未詳
 24.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서울, 행림출판, 1994
 25. 金璟姬 著 : 兒童精神病理學, 서울, 學文社, 1985
 26. 李浚川 : 情志醫學, 中國, 中醫古籍出版社, 1992
 27. 王米渠 : 中醫心理治療, 重慶, 重慶出版社, 1986
 28. 吳克潛 : 吳氏兒科學, 중국, 新文豐出版, 中華민국 66년